

러일전쟁기 黃海海戰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金 顯 哲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조교수)

1. 서 론
2. 일본군의 대러시아 전쟁계획과 해군의 개진준비
3. 러일전쟁의 발발과 황해해전의 경과
4. 황해해전의 승패요인 분석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5. 결 론

1. 서 론

20세기초 한반도와 만주 진출을 둘러싸고 전개된 러일전쟁은 당시 세계적 수준의 군사대국 러시아와 동북아의 신흥국가 일본간 대결의 장이자, 당시까지 개발된 무기와 함정을 비롯하여 동서양의 군사전략·전술과 동원체제를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실험대였다. 일반적으로 러일전쟁을 일본측의 승리로 이끈 데에는 육군의 평토회전(奉天會戰)과 해군의 쓰시마해전(對馬

島海戰)의 승리가 커다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동북아에서 러·일간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양국 내에서 상대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일본측으로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개전하여 초기의 전투에서 승리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였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육군과 해군의 최정예 부대와 최신식 함정 및 근대화된 무기들을 동원하는 한편, 국내외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어도 일본측의 의도대로 전쟁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황해(黃海)를 비롯한 주변해역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와 만주(滿洲)지역에 신속히 파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특히 육군의 상륙을 지원하고 보급로 및 해상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역할이 이전의 전쟁에서보다 더욱 중요해졌으며, 뤼순(旅順)에 정박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가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04년 개전 이후 러·일 양국간 일련의 해상전투, 즉 인천(仁川) 앞 해전 및 뤼순항(旅順港) 봉쇄, 그리고 뤼순항을 탈출하는 러시아 함대의 주력을 해상에서 격퇴시킨 황해해전(黃海海戰) 등은 일본에게 그 뒤 육·해상 전투에서의 승리에 못지않게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의 발틱(Baltic)함대를 격퇴한 쓰시마해전(對馬島海戰)의 승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리워진 '황해해전', 즉 1904년 8월 10일 비트게프트(V. K. Vitgeft) 제독의 뤼순함대(旅順艦隊)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의 연합함대(連合艦隊)가 전투를 벌인 황해해전은 장갑함시대의 최초의 치열한 해전으로서 '라운드 아일랜드(Round Island)의 전투'로도 알려졌다. 동시에 황해해전은 발틱함대의 도착 전까지 양국 해군간 전초전의 성격을 띠었으며, 전투규모에 비하여 그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양국 군대를 비롯하여 주변국가들에게 러시아 해군의 몰락과 일본의 승전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사건이었다.¹⁾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근대적 장갑함시대의 최초의 해전으로서 러일전쟁 개전 이후 일본 해군의 제해권 장악과 뤄순(旅順) 공격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황해해전’을 중심으로, 당시 일본 해군이 어떠한 전쟁수행 계획하에 러시아와의 개전을 준비하였으며, 선전포고 이후 뤄순항(旅順港)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무력화시키고 봉쇄하기 위하여 어떠한 해상전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군의 전략·전술의 변경 및 러·일간 전쟁 상황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끼쳤는가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군의 대러시아 전쟁계획과 해군의 개전준비

(1) 일본군의 대러시아 전쟁수행 계획과 해군의 역할

청일전쟁 종전 직후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대륙진출이 좌절되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였다. 일본군 참모본부는 러시아가 극동에서 동원가능한 병력을 약 25만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며, 일본 육군이 이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전쟁터가 만주(滿洲)로 상정되었으며, 만약 러시아군의 남하시 결전장은 남만주(南滿洲)가 되며, 만약 러시아군이 퇴각해서 유인한다면 북방으로 추격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서 확립되었다.²⁾

1) 국내외에서 러일전쟁에 관련된 주요 기본사료 및 문헌해제에 대해서는 김용구·하영선 공편, 『한국외교사연구』, 나남출판, 1996, 463-601쪽 참조. 최근 전쟁론의 관점에서 러일전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을 들 수 있음.

1903년 12월 28일, 일본정부는 「군비보충(軍資補充)을 위한 임시지출(臨時支出)을 위한 건(件)」 등 4개의 긴급칙령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개전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 육군은 러시아군의 남하를 우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조선(朝鮮)을 제압하기를 희망하였다. 해군군령부(海軍軍令部)는 러시아 함대가 뤬순(旅順)에 집결하여 조기의 결전을 회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해군은 쓰시마해협(對馬島海峽)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반도 북부에 대규모 부대를 호송할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³⁾

육군의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 1904년 1월 일본 해군의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즉 개전에 즈음하여 러시아 동양함대(東洋艦隊)의 편성을 보면, 주력이 뤬순(旅順) 방면에 있고, 여러 척의 순양함으로 구성된 1개 지대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방면에 있으며, 그 외 여러 척의 함정이 한국과 중국연안을 순찰중인 점이 고려되었다. 일본군 참모본부는 러시아 함대가 뤬순과 블라디보스톡의 2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아직 전비가 갖추어지지 못한 시점을 이용하여 급습한다면 개전 초기에 기선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⁴⁾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의 작전계획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상황을 예상하여 책정되었다.

제1계획 - 러시아 함대가 뤬순(旅順)과 블라디보스톡 방면으로 나뉘어져 그 대비가 완전하지 못한 시기에 일본이 진격하여 기선을 제압하는 방안.

제2계획 - 러시아 함대가 뤬순과 블라디보스톡 방면으로 나뉘어져 그 전비와 경비가 완비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

제3계획 - 한반도의 동서로 분립된 러시아 함대가 1개로 합해지거나 합동해서 활동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

2) 木石植久慶, 『あの頃日本は強かつた: 日露戦争100年』,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3, 35쪽.

3) 吉屋哲夫, 『日露戦争』, 東京: 中央公論社, 1984, 81-82쪽.

4) 參謀本部 編, 『明治三十七・八年機密日露戦争史』 第一卷, 東京: 巖南堂書店, 1977, 112-114쪽.

제4계획 - 러시아가 힘을 다하여 뤼순과 블라디보스톡 방면의 방비를 엄중히 하여 그 함대의 주력이 출전하는 경우, 또는 내외정세의 변화에 의해 일본 함대의 주력이 적의 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⁵⁾

이러한 작전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일본 참모본부는 정치적 고려 및 군사전략으로 판단해 볼 때, 위 계획 중 제1계획이 개전 초기 가장 유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해군이 취하기로 결정한 제1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계획 요령(第一計劃 要領)

- 一. 대내외적으로 일본군대 행동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한정된 수단을 사용하여 연합함대(제1, 제2함대)를 사세보(佐世保)에서 출항시켜 뤼순(旅順) 방면의 적 함대를 급습하도록 함.
- 二. 연합함대의 사세보(佐世保) 출항에 뒤이어서 제3함대로서 조선해협(朝鮮海峽, 현재 대한해협)을 막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浦鹽)의 적에 대하여 해협을 경계하여 지키도록 함.
- 三. 함대의 발진후 시기를 보아서 해군 전시편제를 실시함.
- 四. 임시근거지를 진해만(鎭海灣)에 설치함.
- 五. 사세보(佐世保), 팔구포(八口浦, 한국 서남단에 위치) 사이에 부설하는 해저전신선에 의해 한국 서남해(南西海) 방면에서 활동하는 일본 함대와의 통신연락을 유지함.
- 六. 대마도(對馬島)로부터 거제도(巨濟島)를 경유하여 마산포(馬山浦)에 이르는 전신선을 부설하여 임시근거지 및 한국 내지와의 통신연락을 유지함.
- 七. 함대 발진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육군을 출발시켜 인천(仁川)으로 수송 상륙시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필요한 병력을 사세보(佐世保)에서 승선하는 조치를 취함.⁶⁾

5) 각각의 작전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책, 114-119쪽 참조.

6) 위의 책, 115-118쪽.

이 같은 일본군의 전쟁계획은 유럽 러시아지역에서 동원된 러시아의 예비병력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극동지역으로 수송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제약을 활용하여, 개전 초기에 만주(滿洲)에 있는 러시아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만주간의 통신로와 제해권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다.⁷⁾

(2) 일본 해군의 전력증강과 개전준비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등 삼국간섭으로 만주지역에 대한 진출이 좌절된 이후,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 대규모 군비확장을 추진하였다. 당시 사이가우(西郷從道) 해군대신(海軍大臣)은 1894년 7월 해군확장 계획을 각의(閣議)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장갑전함(甲鐵戰艦) 4척(1만 5,000톤), 일등순양함 4척(7,300톤), 구축함과 수뢰정 등 15척을 2억엔을 들여 10여 년간 건조하는 것이었다.⁸⁾ 당시 제출된 「해군확장(海軍擴張) 계획(計劃)」에서는 건함건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一. 해군의 목적은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전전함(主戰戰艦)을 갖추어야 한다.
- 二. 주전전함의 주체는 장갑전함(甲鐵戰艦)으로 한다.
- 三. 주전전함은 장갑전함 이외에 순양함(巡洋艦) 이하 함정을 보조함대로 한다.
- 四. 우리(일본)의 주전전함의 정도는 현재 및 가능한 장래에 동양에 패권되는 일국(一國)의 세력, 또는 여기에 한 두 나라가 연합하는 세력을 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항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⁹⁾

7) 吉屋哲夫, 앞의 책, 86쪽; 강성학, 앞의 책, 308-309쪽.

8) 渡邊機治郎, 『人物近代日本軍事史』, 東京: 千倉書房, 1937, 332-333쪽.

이러한 해군의 전력확충 계획은 당시 야마모토(山本權兵衛) 군무국장(軍務局長)에 의해 기안되어 각의에서 승인된 후 2기에 나누어져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리하여 1895년 12월, 제9의회에서 9,497만 9,685엔을 조선(造船)과 조병(造兵) 등에 지출하기로 결의되었다.¹⁰⁾ 그 후 일본 해군이 추진한 수정건함계획은 제1기 건조예정 함정에 일등순양함 2척을 추가하여 1896년부터 1905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약 2억 1,310만 964엔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함계획에 따라 건조된 군함들은 다음과 같다.

장갑전함(甲鐵艦)	4척	(敷島, 朝日, 初瀨, 三笠)
일등순양함(一等巡洋艦)	6척	(八雲, 吾妻, 淺間, 常般, 盤手)
이등순양함(二等巡洋艦)	3척	(笠置, 千歲, 高砂)
삼등순양함(三等巡洋艦)	3척	(新高, 對島, 音羽)
수뢰포함(水雷砲艦)	1척	(千早)
수포함(淺喫水砲艦)	3척	(宇治, 伏見, 隅田)

그외 구축함(驅逐艦) 23척, 일등수뢰정(一等水雷艇) 16척, 이등수뢰정(二等水雷艇) 37척, 삼등수뢰정(三等水雷艇) 10척 등 주요 군함과 잡선(雜船) 584척임.¹¹⁾

일본 해군의 이러한 전력확충 계획은 대러시아 정세의 긴박함 속에서 신속히 추진되어 예정보다 빨리 제1차 영일동맹(英日同盟)이 체결된 1902년에 거의 완료되었다. 이러한 건함계획이 진행되어 1902년 1월경, 일본 해군이 당시 보유한 전력은 12만 9,715톤이 되며, 근대 일본 해군의 창설 이래 최대규모가 되는 '66함대(六六艦隊)'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66함대(六六艦隊)'는 전함 6척, 일등순양함 6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함형(艦

9) 당시 해군력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책, 333-335쪽 참조.

10) 그 주요 내용은 장갑전함(15,140톤) 1척, 일등순양함(7,000톤) 2척, 이등순양함(4,850톤) 3척, 수뢰포함(1,200톤) 1척, 구축함(254톤) 8척, 수뢰정 1등 5척, 2등 28척, 3등 39척 등이 1896년부터 1902년에 걸쳐 7개년간 건조될 예정이었다. 위의 책, 335-336쪽.

11) 위의 책, 336-337쪽.

型), 속력(速力), 포종(砲種), 포수(砲數)가 일제히 정제되었으며 가볍고 빠른 순양함 및 구축함이 동반되는 대형을 이루었다.¹²⁾

한편, 일본 해군은 러시아와의 개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측면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선 영국의 중개로 아르헨티나로부터 구입한 군함(나중에 가스가<春日>, 닛신<日進>이라 명명됨)이 일본 해군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가스가(春日)호와 닛신(日進)호는 1904년 1월 26일 콜롬보를 거쳐 2월 5일에는 싱가포르를 출항하였다. 그 사이 1904년 2월 3일 일본에 2개의 전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푸(芝罘) 주재 일본영사로부터 뤼순(旅順)의 러시아 함대가 수리중인 1척을 제외하고는 전부 출항하여 행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선점령을 향해 출항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에 사세보(佐世保) 등의 군항에서는 만일에 대비하여 연습 명목하에 기뢰가 부설되었다.¹³⁾

그 다음날인 1904년 2월 4일 원로·각료가 참석한 어전회의에서, 야마모토(山本權兵衛) 해군상(海軍相)은 러시아 함대의 출동목적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어전회의에서는 대러시아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며 러시아에 대한 국교단절을 알리는 최후통고안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다음날 2월 5일 연합함대에게 황해방면의 러시아 함대를 격멸하며, 육군의 선발과

12) 위의 책, 337쪽. 이러한 해군력증강 노력의 결과, 1904년 2월 개전 당시 일본 해군은 다음 함정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주요 군함으로서 일등전함 6척(朝日, 三笠, 初瀨, 敷島, 富士, 八島), 일등순양함 6척(淺間, 常般, 出雲, 磐手, 八雲, 吾妻), 이등전함 2척(鎮遠, 扶桑), 이등순양함 9척(笠置, 千歲, 嚴島, 松島, 橋立, 高砂, 吉野, 浪速, 高千 禾惠), 수뢰모함 1척(豊橋), 삼등순양함 8척(新高, 對馬, 秋津洲, 音羽, 和泉, 明石, 須磨, 千代田), 삼등해방함 10척, 일등포함 2척, 통보함 4척, 이등포함 8척으로서 합계 57척 251,730톤에 달하였다. 그 외 구축함 19척 6,511톤, 수뢰정 76척 6,430톤으로서 총계 512척 264,681톤에 달하였다(위의 책, 339-341쪽).

13) 吉屋哲夫, 앞의 책, 90-91쪽.

견부대(임시과견대)를 호송하도록 하며, 제3함대에게는 진해만(鎭海灣)을 점령하여 대한해협을 경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¹⁴⁾

3. 러일전쟁의 발발과 황해해전의 경과

(1) 연합함대의 뤼순항 기습과 인천(仁川) 앞 해전

1904년 2월 5일, 뤼순(旅順)을 출항했던 러시아 함대가 다롄항(大連港)에 잠시 정박했다가 뤼순으로 돌아와 항구 밖에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해군의 군사행동은 곧바로 개시되었다. 연합함대는 둘로 나뉘어져서, 뤼순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에 기습공격을 가하며, 육군 선발과 견부대 4개 대대 2,200명의 병력을 인천(仁川)으로 수송하여 상륙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6일 사세보(佐世保)항을 출항하였다.¹⁵⁾

1904년 2월 8일,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은 연합함대가 뤼순항을 향해 항해하는 중에 미카사(三笠)호 선상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라”는 천황의 명령문을 낭독함으로써 본격적인 개전에 돌입하였다.

당시 뤼순함대 사령관인 스타크 제독(Admiral Stark)은 개전이 임박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러시아 황제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명령을 받았다.¹⁶⁾ 스타크 제독은 두 척의 구축함에 위

14) 개전 직전 일본 해군은 제1, 제2 및 제3의 3개 함대로 개편되어서, 제1·제2함대가 연합함대(連合艦隊)를 구성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연합함대사령관 겸 제1함대사령관에는 도고 헤이하치로 해군중장이, 제2함대 사령관에는 가미무라(上村彦之丞) 해군중장이, 그리고 제3함대 사령관에는 片岡七郎 해군중장이 임명되었다. 당시 연합함대와 제3함대의 전시편성에 대해서는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証緒 著, 『圖說 日露戰爭』, 東京: 河出書房神社, 1999, 28쪽 참조.

15) 吉屋哲夫, 앞의 책, 91-92쪽.

16) 개전 직전 러시아 극동함대는 뤼순(旅順, Port Arthur)에 정박중인 뤼순함대로서 페트로

순항 밖에서 초계하면서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두 척의 순양함에 탐조등을 밝히면서 항구입구를 지키도록 하며, 나머지 모든 함정들에게 어뢰에 대비하며 전투태세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904년 2월 8일 자정 직전 기습한 일본 해군의 첫 어뢰가 발사되었으며, 러시아 전함 레트비잔(Retvizan)과 짜스레비치(Tseasrevich), 그리고 순양함 팔라다(Pallada)호가 선체에 구멍이 뚫리며 항구연안에 가라앉았다.¹⁷⁾

개전 초기 인천(仁川)에는 러시아 이등순양함 바라그(Varyag, 총톤수 6,500톤)와 장갑포함 코레츠호(Koreyets, 1,200톤)가 정박하고 있었다. 당시 1904년 2월 8일 순양함 치요다(千代田, 총톤수 2,439톤)호는 인천 부두에서 2해리 지점에 정박하면서, 러시아 군함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치요다(千代田, 함장 村上格一)호는 러시아 군함에 비해 일본 군함이 열세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러시아 군함의 선제공격을 우려하였다. 이후 치요다호는 연합함대 사령관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출항하여 약속지점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2월 7일 저녁 출항준비를 완료한 후 이날 저녁 12시경에 야음을 틈타 인천항을 빠져나왔다.¹⁸⁾

인천항을 빠져나온 치요다호는 남쪽으로 향해하여 그 다음 날인 2월 8일 오전 10시, 아산(牙山) 남쪽에 정박중인 제4전대(第四戰隊, 사령관 爪生外吉 少將)와 합류하였다. 이후 제4전대는 치요다호를 선두로 다카치호(高千穂)호, 아사마(淺間)호가 뒤따르는 형태로 일렬중대의 진영[單縱陣]을 이루었다. 그리고 우측 후방에 운반선이 따라오며, 그 좌측에는 수뢰정의 호위

파블로브스크(Petropavlovsk, 기함), 세바스토폴(Sevastopol), 폴타바(Poltava), 페레스베트(Peresvyet), 포베다(Pobeda), 짜스레비치(Tseasrevich) 및 레트비잔(Retvizan)의 7척의 전함과 6척의 순양함, 그리고 1척의 상선으로 구성되었다. 木石植久慶, 앞의 책, 90-91쪽; Jukes, Geoffrey,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Oxford: Osprey Publishing Ltd, 2002, p. 25.

17) Jukes, *ibid.*, pp.25-26.

18) 海軍勳功表彰會 編, 『日露海戰記』, 東京: 海軍勳功表彰會, 1908, 26-28쪽; Jukes, *op.cit.*, pp. 24-25; 木石植久慶, 앞의 책, 158쪽.

하에 나니하(浪速)호, 니히다카(新高)호, 아카시(明石)호들이 뒤따랐다. 이들 함정들이 2월 8일 오후 4시 40분, 인천앞 팔미도 등대로부터 약 3해리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러시아의 코레츠(Koreyets)호가 전속력으로 일본 함정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이에 나니하(浪速)호, 니히다카(新高)호, 아카시(明石)호는 팔미도(八尾島) 바깥에 머무르면서, 제4전대의 나머지 본대 함정들이 인천부두를 향해 직항하였다. 러시아 코레츠호와 일본의 운반선 대련환(大連丸)간의 거리가 1해리 정도로 근접하게 되었다. 전투는 당시 일본 함정의 동향을 파악한 러시아 군함 코레츠호(Koreyets)에서 먼저 발포하자, 일본의 수뢰정들이 수뢰를 발사하였다. 이에 나니하(浪速)호 등이 러시아함에 돌진하자, 러시아 군함 코레츠호가 인천항 내로 퇴거하였으며, 일본 함대도 항구 내로 쫓아 들어가 당시 인천항에 정박중인 외국 선박들 사이에 두고 대치상태에 들어갔다.¹⁹⁾

이후 나니하(浪速)호, 아사마(淺間)호, 니히다카(新高)호, 아카시(明石)호는 팔미도 바깥에 머무르면서 러시아 군함의 항로를 막았다. 그리고 다카치호(高千穂)호, 치요다(千代田)호는 운송선을 호위하면서 2월 8일 오후 5시 인천항(仁川港) 부두에 가까이 정박중인 러시아 군함 바라그(Varyag)호에 약 1해리 정도까지 접근하였다. 2월 8일 오후 인천(仁川)에 입항한 일본 함대의 호위하에 1개 여단병력이 약 7시간에 걸쳐 상륙을 감행하였다. 일본 육군의 상륙이 완료되자 그 다음날 2월 9일 오전 7시, 일본의 제4전대 사령관은 공문을 러시아 바라그호 함장에게 보내어, 당일 오후 1시까지 러시아 군함의 인천항 퇴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러시아 군함 코레츠(Koreyets)호와 바라그(Varyag)호는 2월 9일 오전 11시 55분에 인천 밖으로 출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순양함 아사마(淺間)호가 팔미도 서쪽으로 추격하였으며, 기함 나니하(浪速)호는 니히다카(新高)호, 아카시(明石)호와 함께 팔미도 동쪽에서 대기하였다. 그리고 다카치호(高千穂)호, 치요다(千代田)호는 수뢰

19) 海軍勳功表彰會 編, 앞의 책, 28-30쪽.

정대(水雷艇隊)와 공동으로 항해하여 인천항 동쪽 해안 가까이에서 포문을 열었다. 아사마(淺間)호와 러시아의 군함 2척간 거리가 약 8,000미터의 사정거리에 도달하자, 오후 0시 40분 아사마호가 먼저 포문을 열었으며, 이에 러시아 군함도 6미리 속사포, 12인치포 등으로 응전하였다. 양측 군함간 거리가 6~7,000미터 내로 근접하자, 아사마(淺間)호에서 발사된 포탄들이 바라그호의 앞쪽 선체에 연이어 명중되었으며, 바라그호 뒤쪽 선체에도 포탄들이 떨어져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화염에 휩싸인 바라그호는 팔미도(八尾島)에 정박하면서 선박의 화재진화에 나섰다. 그 후 바라그호는 2월 9일 선체가 좌측으로 기울어진 채 팔미도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인천항 내로 되돌아온 바라그(Varyag)호는 소월미도(小月尾島) 부근에 정박하였으나, 아사마호가 돌격해오자 2월 9일 1시 15분경 다시 도주하여 인천항에 정박중인 각국 군함 사이에 은닉하였으며, 이에 아사마호는 함포 사격을 중지하였다. 그리고 코레츠(Koreyets)호는 4시 20분경, 더 이상 탈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폭하였다. 바라그호도 5시경 스스로 불을 질러 침몰하였다. 이 외에도 그 전날 2월 8일 밤, 상하이(上海)에서 인천으로 입항한 동청철도회사(東淸鐵道會社) 기선도 스스로 선체를 폭발함으로써 인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박들은 전부 파괴되었다.²⁰⁾

(2) 일본 해군의 뤼순항구(旅順港口) 폐쇄와 블리디보스톡 함대의 활약

연합함대가 야간기습으로 서전에서 승리한 후, 1904년 2월 14일 제2차 뤼순함대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바다로의 출입구가 좁은 뤼순항의 지리적 특성상 항구내에 정박중인 러시아 함대에 유효한 타격을 가하는 것

20) 위의 책, 30-33쪽. 당시 일본측의 보고에 의하면 인천해전에서 일본측은 1명의 사상자도 없으며, 러시아측은 사망자 85명 및 부상자 73명이었다. 이들 부상자들의 처리와 당시 인천항 바깥에서의 해전상황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은 위의 책, 33-35쪽 참조.

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일본 해군은 결전을 회피하는 러시아 함대를 오히려 뤬순항 내에 묶어두는 ‘뤬순항구(旅順港口) 폐쇄’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이를 위해 연합함대는 뤬순항 출입구에 기선을 나란히 배열하여 침몰시킴으로써, 적 함대의 교동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4년 2월 24일 새벽 제1차 뤬순항구 폐쇄작전이 시도되었으나, 파견된 5척의 기선(상선)이 레트비잔(Retvizan)호와 해안포대로부터의 포탄을 맞아서 침몰되었다. 이어 3월 27일에는 제2차 폐쇄작전이 시도되었으나 상선 4척이 침몰되는 등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²¹⁾

그 후 1904년 4월 12일, 일본大本營 해군부(大本營海軍部)는 육군부(陸軍部)에 뤬순항구(旅順港口)의 폐쇄 여부에 상관없이 제2군(第二軍)의 상륙 실시 방침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904년 4월 중순, 제2군의 랴오둥반도(遼東半島) 상륙을 위한 육해군 합동작전이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연합함대에 명령이 하달되었다.

“연합함대는 한편으로 조선해협(朝鮮海峽, 지금의 대한해협)을 막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적(러시아 지칭)의 함대에 대비하며, 다른 한편으로 뤬순항구에 있는 적의 주력함대를 제압하여 제2군의 수송 및 상륙을 엄호하도록 함.”

……육해군이 상응하여 북으로는 보란점(普蘭店)에서 대沙河(大沙河)에 이르는 공격선을 형성하며, 남으로는 진저우(金州), 청니와(淸泥窪)에 이르는 지역의 점령을 견고히 함으로써 다련만(大連灣) 부근에 확실한 근거지를 만들도록 함.”²²⁾

21) 吉屋哲夫, 앞의 책, 98-99쪽; Jukes, *op. cit.*, p. 27. 당시 뤬순항구 폐쇄작전에 참여한 선박들의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証緒 著, 앞의 책, 48쪽; 吉屋哲夫, 앞의 책, 99쪽 참조.

22) “第二軍及連合艦隊協同作戰ノ方針”과 “連合艦隊司令將官ニ與フル訓令”, 參謀本部 編, 앞의 책, 第二卷, 101-102쪽.

이 같은 작전계획의 변경은 발틱(Baltic)함대가 극동지역으로 출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군의 상황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소식에 접한 일본 해군으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동양함대, 특히 그 주력인 뤼순함대를 격파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²³⁾

1904년 5월 3일 실시된 제3차 뤼순항구 폐쇄작전은 기선 11척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남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뤼순항구 폐쇄작전은 중지되고 회항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8척이 계속 돌진함으로써, 승무원 158명 중 17명은 뤼순(旅順)에 포로로 잡혔으며, 74명은 행방불명되는 등 커다란 인명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도고 연합함대 사령관은 일본군 제2군이 남산(南山)을 점령한 그 다음 날인 1904년 5월 26일大本營의 명령에 의해 뤼순항구의 봉쇄선언을 발표하여, 중립국 선박의 뤼순항 입항조차 저지시키고자 하였다.²⁴⁾

한편, 뤼순함대의 고립과는 대조적으로 3척의 대형순양함 그로모보이(Gromoboi), 로시야(Rossiya), 류릭(Rurik)호로 구성된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함대의 활동은 당시 일본에 위협적이었다. 블라디보스톡함대는 1904년 4월 25일 일본군 보병 1개 중대를 싣고 원산(元山)으로 귀향하던 금주호(金州丸)를 격침하였으며, 6월 15일 군운송선 화천호(和泉丸)와 상륙호(常陸丸), 좌도호(佐渡丸)를 격침하였다. 이후 7월 20일 블라디보스톡함대는 쓰가루해협(津輕海峽)을 통과한 후 태평양에 도달하여 일본 기선 고도호(高島丸)를 격침시켰다. 블라디보스톡함대는 이후 10일간에 걸쳐 태평양연안에서 활동하면서 일본 기선 4척, 영국 기선 2척 및 독일 기선 1척

23) Jukes, *op.cit.*, pp. 39-40. 1904년 4월 30일 러시아군은 뤼순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양함대(東洋艦隊)를 태평양(太平洋) 제1함대(1st Squadron of the Pacific Fleet)로 개칭하고, 발틱(Baltic)함대를 태평양 제2함대(2nd Squadron of the Pacific Fleet)를 편성하여 증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2일 후 로젠스트벤스키 소장(Rear-Admiral Zinovy Petrovich Rozhdestvensky)을 제2함대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24) 吉屋哲夫, 앞의 책, 105쪽.

을 침몰시킨 후, 7월 30일에 쓰가루해협(津輕海峽)을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항하였다.

당시 침몰된 상선들은 일본 병력의 수송, 철도엔진, 그리고 튀순 요새 공략을 위해 사용될 대포 등 무기들을 싣고 있어서, 일본군의 작전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함대의 활약으로 일본 국민 사이에는 언젠가 러시아 함대로부터 포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동경만(東京灣) 근처에 적 함대가 3일간 활동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한 3척의 러시아 순양함은 1904년 8월 14일 새벽 한국의 울산항(蔚山沖)에서 가미무라(上村) 사령관이 이끄는 제2함대 소속 4척의 순양함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에 블라디보스톡함대는 다시 항로를 돌렸으나 제2함대의 추적을 받아 접전하였다. 결국 류릭(Rurik)호는 격침되고 다른 2척은 대파됨으로써, 사실상 블라디보스톡함대의 전력이 상실되었다.²⁵⁾

(3) 튀순항의 고립과 러시아 함대의 탈출 시도

1904년 6월 20일, 튀순함대의 비트게프트(V. K. Vitgeft) 사령관은 러시아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 튀순항을 떠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을 향해 출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04년 6월 23일 튀순함대는 짜스레비치(Tseasrevich), 레트비잔(Retvizan), 포베다(Pobeda), 페레스베트(Peresvyet), 세바스토폴(Sevastopol) 및 폴타바(Poltava)의 전함 6척이 대형을 이루며, 그 뒤 5척의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이 뒤따르면서 튀순(旅順)을 출항하여 일본 연합함대의 포위망을 뚫고자 하였다.

튀순항으로부터 20마일 지점에 이르러 튀순함대는 도고 제독이 이끄는 미사카(三笠)호, 아사히(朝日)호, 후지(富士)호, 시키시마(敷島)호 및 친옌

25) Jukes, *op.cit.*, pp. 40-47; 吉屋哲夫, 앞의 책, 106-107쪽.

(鎮遠)호의 전함 5척, 16척의 순양함 및 32척의 구축함 또는 수뢰정으로 구성된 연합함대와 조우하게 되었다. 이에 비트케프트 사령관은 어두워지기 전에 회항하였으며, 도고 제독도 전함들을 야간전투에 투입하지 않고 구축함과 수뢰정으로 뒤순함대를 추적케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군함들은 썰물 때문에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순함 바깥에서 요새포대의 호위하에 정박하였다. 러시아 전함 세바스토폴(Sevastopol)은 기뢰에 부딪혀 수심이 낮은 해안가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6월 23일 야간에 추적해 온 일본 구축함과 수뢰정들이 일련의 어뢰공격을 가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러시아 군함과 포대로부터의 포격이 일본 군함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다. 뒤순함대는 출항후 약 2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항구에 다시 입항하였다. 이러한 뒤순함대의 탈출 실패로 러시아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다.²⁶⁾

이후 일본 연합함대는 뒤순항구(旅順港口)를 봉쇄하는 한편, 뒤순에 근접한 일본 육군이 포격을 계속함으로써 뒤순항에 압박을 계속 가하였다. 이에 8월 5일 러시아 구축함이 뒤순항구에서 탈출을 다시 시도하였다. 이들 러시아함정의 동향은 8월 5일 오후 4시경 뒤순항구 밖에서 정찰중인 2척의 일본 구축함에 의해 파악되었으며, 14척으로 증가된 러시아 구축함은 일본 구축함을 삼면으로 포위하였다. 8월 5일 오후 4시 40분경 양국 함정간 간격이 약 5,000미터에 이르자 양국간 포격전이 개시되었다. 러시아 함정들은 항로를 북동쪽으로 돌려 동선생각(東鮮生角)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 구축함들이 러시아 구축함의 전면으로 나아가서 포격을 가하자, 러시아 구축함들은 급히 뺏머리를 돌려 뒤순항(旅順港)으로 도주하였다. 얼마 후 8월 5일 오후 5시경, 일본 구축함 1척이 합류한 후 3척의 일본 구축함은 러시아 구축함 11척에 접근하여 압박을 가함으로써 뒤순항구로 귀항케 하였다.

26) Jukes, *op.cit.*, p. 40; 吉屋哲夫, 앞의 책, 107쪽.

이와 같이 러시아 함대는 8월에 들어서서 구축함을 항구 밖으로 파견하여 일본 함대의 봉쇄선의 취약점을 정찰하는 한편, 대소고산항(大小孤山沖) 등 주변해역으로 항해하여 항구를 포위한 일본 함대의 좌측을 공격하는 등 탈출기회를 엿보았다. 8월 8일 러시아 함대 및 구축함들은 대거 뤼순항을 출항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일본 군함 닛신(日進)호, 가스가(春日)호 및 제 5전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항구 내로 피난하였다. 그 다음 날인 8월 9일에도 러시아 구축함이 선생각(鮮生角)의 동쪽 만(灣) 방면을 향해 출항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연합함대의 제1구축대(第一驅逐隊)가 돌진해오자 다시 항구로 되돌아갔다.²⁷⁾

(4) 1904년 8월 10일 ‘황해해전(黃海海戰)’의 경과

1) 뤼순함대의 출항과 일본 함대의 추격전

8월 10일 여명에 뤼순항을 탈출한 러시아 함대는 쾌속순양함 노비그(Novik)호를 선두로 출항하였다. 먼저 나선 러시아의 소해정부대(掃海船隊)가 항구 주변의 기뢰를 제거하였으며, 그 부근에 수 척의 구축함이 뒤따랐다. 오전 10시경 뤼순함대의 주력함대는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를 선두로 노철산(老鐵山) 남동쪽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일본의 봉쇄선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은 당시 항구를 봉쇄, 초계하고 있는 일본의 제1함대에 의해 8월 10일 오전 7시 10분경 포착되었다. 당시 도쿄(東郷平八郎) 제독이 이끄는 기함(旗艦) 미카사(三笠)호를 비롯한 제1함대는 뤼순 남쪽 해상 40해리(약 74km)에 위치한 엔도(円島) 부근을 초계중이었다. 순양함대로 편성되어 있는 제3, 제5, 제6의 3개 전대(戰隊)는 뤼순

27) 海軍勳功表彰會 編, 앞의 책, 274-276쪽.

항구의 동쪽과 서쪽 해상에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1904년 8월 10일 오전 7시 20분, 제1구축함(第一驅逐艦)으로부터 무선보고를 받은 도고 제독은 곧바로 전함대에 뒤순함으로 급히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당시 일본 주력함대는 휘하의 구축함대 및 기타 함정들과 함께 근거리에서 이동하여 우암(遇岩)의 동남쪽 방면에 은닉하면서 서서히 러시아 함대가 남하하기를 기다렸다.²⁸⁾

당시 일본과 러시아 함대의 이동경로를 보면, 8월 10일 일본 제3전대가 러시아 함정들을 남쪽으로 유도하면서 다가왔으며, 미카사(三笠)호를 비롯한 제1함대는 근거지를 떠나 서남쪽으로 진행하여 다가왔다. 오전 11시경 일본 제1함대와 뒤순함대가 근접하게 되자, 뒤순함대는 방향을 바꾸어 선두의 노비그호를 함대 후미의 병원선 사이로 선회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를 선두로 하고 순양함을 좌현에 배열하는 2열 종대 대형을 이루면서 나아갔다.

8월 10일 정오를 지날 무렵, 일본 제1전대(第一戰隊)의 추격에 새로 닛신(日進)호, 가스가(春日)호가 합류하였으며, 우암(遇岩)의 남동쪽에서 서남서로 항로를 바꾸어 계속 전진하였다. 이 시각 뒤순함대는 뒤순항구로부터 약 30해리 떨어져 있는 충합(沖合)에 도달하였다. 오후 0시 30분 도고 제독의 제1전대는 뒤순항구의 남동쪽 약 50해리(약 93km)의 우암(遇岩) 부근에서 일렬종대의 대형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함대를 발견하였다. 도고 제독은 적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러시아 군함을 해상에서 가능한 한 멀리 유도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 역할은 순양함 야쿠모(八雲)호를 기함으로 하는 제3전대(第三戰隊, 사령관 出羽重遠 少將)가 담당하였다.

8월 10일 오후 1시, 제1전대는 적 함대의 앞을 횡단하기 위해 좌측으로 90도 뱃머리를 돌렸으며, 이후 적진의 우측에 다가서기 위해 횡대진형을 이루면서 서남서 방향으로 향해하였다. 이러한 제1전대의 항로변경을 본 러시아 함대는 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도주하였다. 이에 제1전대는 다시

28) 위의 책, 276-277쪽;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証緒 著, 앞의 책, 64-65쪽.

좌측으로 90도 뱃머리를 돌렸으며, 함대의 후미에 있던 닛신(日進)호가 선두에 서서 동북동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려 돌진하는 대형으로 항해가면서 러시아 함대의 선두를 압박하였다.²⁹⁾

2) 제1차 접전과 뤼순함대의 도주

8월 10일 오후 1시 15분, 미카사(三笠)호의 주포가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동시에 다른 일본 전함들도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제3전대(第三戰隊)의 장갑순양함 야쿠모(八雲)호도 포격에 가담하였다. 이에 러시아 군함도 항로를 우측으로 돌려 남쪽으로 향해 일본 제1주력함대의 후방으로 나아갔다. 일본 함정의 포격에 맞서 러시아 군함도 포격을 가하기 시작함으로써, 러·일 양국 주력함대간의 소위 ‘황해해전(黃海海戰)’이 시작되었다.³⁰⁾

전투개시 20분 후인 오후 1시 30분, 도주하는 러시아 함대와 이를 추적하는 일본 함대간의 거리가 6,000에서 8,000미터에 이르자, 양측은 기함을 중심으로 함포를 발사하였다. 일본 제1함대는 다시 뱃머리를 돌려 미카사(三笠)호를 선두로 하는 중대대형으로 되돌아온 후에 함포사격을 재개하였다. 일본의 함포사격은 러시아 함대의 선두에 있던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에 집중되었으며, 얼마 후 집중포격을 받은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는 포연에 휩싸였다.

이 시각 일본 함대는 적함 앞에서 ‘정자(丁字)’ 형태로 진형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 우측으로 약 80도 일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함대의 갑작스런 항로변경으로 러시아 함대의 진형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으며, 일본 함정과의 전투를 피하고 남동쪽으로 도주하였다.

29) 海軍勳功表彰會 編, 앞의 책, 277-281쪽.

30)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衞緒 著, 앞의 책, 65쪽. 8월 10일 당시 양국 함대의 접전 당시 배치상황 및 항로 등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海軍勳功表彰會 編, 앞의 책, 280-281쪽 참조.

이후 뤼순함대는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으로의 회항을 위해 서서히 우측으로 돌아 중대대형을 이루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동북쪽으로 전속력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서남 방향을 향해 늘어섰던 연합함대도 항로를 바꾸었다. 다시 뤼순함대가 전방을 향해 나아가자 연합함대는 뤼순함대의 옆에 나란히 항해하는 대형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합함대의 선두에 있는 미카사(三笠)호가 뤼순함대의 집중포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때 피해로 함장(伊地知彦次郎 大佐)을 비롯한 88명이 부상, 24명이 전사하였다. 그 후 양측 함정간의 거리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자, 제1함대는 오후 3시 30분경 포격을 중지하였다. 이상 2시간에 걸친 포격전에서 일본 함대는 오후 2시 30분경 러시아 군함에 포탄을 명중시켜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³¹⁾

3) 연합함대의 재추격과 제2차 접전

도주하는 뤼순함대에 비하여 속력이 앞선 연합함대는 추격을 계속하였다. 제1전대(第一戰隊)는 오후 3시 30분경 16노트의 쾌속을 이용하여 러시아 함대의 전방에 나아갔으며,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 30분 산동각(山東角) 북방 약 45해리 지점에 이르러 양측 선두함정간 거리가 약 7,000미터에 이르렀다. 러시아 전함 포베다(Pobeda)호와 일본 군함간의 거리가 7,500미터에 이르자, 러시아 전함 포베다호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가 사정거리 내에 포착되자 포격을 재개하였다. 즉 제2차 접전이 시작되어 양측간의 포격전이 1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이 때 일본 함대는 러시아 함대에 점차 접근하여 러시아 함대의 선두를 제압하는 한편, 집중적으로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오후 6시 40분경 일본 함대의 12인치 포탄이 뤼순함대의 기함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에 명중되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령탑에 있던 비트게프트(V.K. Vitgeft) 사령관 이하 주요 참모들이 순식간에 전사하였다. 계속하여 제2탄

31) 위의 책, 280-284쪽;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証緒 著, 앞의 책, 65-66쪽.

이 명중되어 짜스레비치호의 함장 이바노프 대령을 비롯하여 사령탑 내의 고위 장교들이 전멸하였다.

또한 짜스레비치호는 조타수의 사망과 조타장치의 손상으로 선체가 급히 우측으로 기울어지려고 하자, 선체를 급히 좌측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함대 사이로 나아갔다. 그러자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에 이어 두 번째로 선두에 섰던 레트비잔(Retvizan)호를 비롯한 후속함정들도 기함을 따라서 차례로 좌측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이러한 갑작스런 방향선회로 각 함정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다시 우측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러시아 함대 진형은 대혼란에 빠졌다.

도고 제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제1함대는 좌측으로 3,500에서 5,000미터의 근거리에서 있는 뤼순함대에 맹포격을 가하면서 뤼순함대의 동쪽 진로를 막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러한 포격을 피해 서쪽으로 도주하는 뤼순함대를 포위하기 위해, 제3전대는 야쿠모(八雲)호를 선두로 뤼순함대의 남동쪽으로 접근해왔으며, 동시에 제5전대는 기함 아사마(淺間)호를 선두로 뤼순함대의 북서쪽에서 다가왔다. 그리고 제1함대 휘하 제1전대는 좌측 20도로 뱃머리를 돌려 동쪽에서 뤼순함대를 추격하였으며, 제3전대는 남동쪽에서 추격하였다. 이렇게 삼면으로 일본 함대에 포위된 뤼순함대의 각 함정은 분열되어 우왕좌왕하였다. 노비그(Novik)호 등은 남쪽으로 탈출로를 찾아서 도주하자, 대기하고 있던 제6전대가 이들 러시아 함정들의 앞을 차단하여 포격을 가하였으며, 제3전대 역시 좌회전하여 추격하였다.

당시 페레스베트(Peresyvet)호에 승선한 함대 부사령관 우흐톰스키(Prince Ukhtomski) 소장이 기함 짜스레비치(Tseasrevich)호로부터 “비트게프트 사령관이 지휘권을 이양한다”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러시아함정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차석 지휘관의 지위에 있는 우흐톰스키 소장은 페레스베트호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신호기를 게양하면서, 뤼순함으로 되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해상에서는 점차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오후 8시 2분 도고 제독은 추격전의 임무를 구축대(驅逐隊)와 수뢰정함(水雷艦

艇)이 계속 수행하도록 하면서 전투를 중지시켰다. 이에 일본의 구축대와 수뢰함정은 야간에 적함을 찾기 위해 어두운 바다를 향해하였지만, 무질서한 작전으로 인해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³²⁾

이와 같이 뤼순의 러시아 함대와 연합함대간의 전쟁은 일본측의 승리로 끝났다. 뤼순항 출항 당시 20여 척의 러시아 주력함대 중 전함 5척, 순양함 1척, 구축함 3척만이 도주하여 다시 뤼순항으로 귀항하였다. 출항 당시 함정의 절반이 넘는 11척이 중립국의 항구에서 무장해제당하거나 침몰함으로써, 뤼순함대 전력은 절반 수준으로 크게 약화되었다.³³⁾

한편, 뤼순함대 중 유일하게 노비그(Novik, 함장 안드류 페트로비치 스위아 중령)호는 쾌속함정의 유리함을 이용하여 황해를 탈출하여 태평양(太平洋)을 우회하여 블라디보스톡 근처 사할린(樺太)의 서쪽 해안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비그호는 추격하던 일본 쾌속순양함 쓰시마(對馬)호와 치토세(千歳)호에 의해 발견되어, 1904년 8월 30일 야간전투에서 20여 발의 포탄 공격을 받고 많은 승무원이 사망하였으며, 선체는 함장에 의해 근처 해안에서 침몰되었다.³⁴⁾

32) 海軍勳功表彰會 編, 앞의 책, 282-285쪽;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衞緒 著, 앞의 책, 66-67쪽; Jukes, *op. cit.*, p.46.

33) 吉屋哲夫, 앞의 책, 107쪽. 황해해전에서 도주한 러시아 군함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Jukes, *op. cit.*, pp. 46-47;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衞緒 著, 앞의 책, 67-68쪽 참조.

34) 당시 살아남은 러시아 승무원들은 육지로 헤엄쳐 도착하여 45일간 일본군을 피해서 해맨 끝에 걸어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였다.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衞緒, 앞의 책, 67쪽; Jukes, *op. cit.*, p. 47.

4. 황해해전의 승패요인 분석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1) 일·러 함대의 전력 비교와 황해해전의 평가

러일전쟁 당시 황해해전을 비롯한 해전에서 일본 함대가 승리한 요인으로 일반적으로는 양국 군대의 질과 사기, 전략과 전술의 구사, 지리적 조건의 차이 이외에도 병기와 장비상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해전은 세계해전사상 획기적인 것으로서, 양 군함 간 4~5,000미터의 원거리에서 주포 포격의 응수로 전투의 향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함대의 화력을 차례차례 목표 적함에 집중시켜 그 전투력을 탈취한다는 전법이 실전에서 처음으로 효과를 거두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은 고급지휘관의 능력, 훈련, 자질, 군함의 성능 및 화력 등에서 균형을 이룸으로써 실제 해상전투에서 함대운용을 유효하게 활용하였다. 러시아군에 비하여 일본군은 병기와 장비면에서 어느 정도 통일되었으며, 특히 해군의 경우 주력함정들이 모두 청일전쟁 이후 10년간에 걸쳐 제조된 신예 함정들로서, 속력에 있어 우수하고 화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연합함대의 기함(旗艦)인 전함 ‘미카사(三笠)호’는 18노트의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였으며, 영국에서 건조된 15척의 구축함의 경우 최고속력 31노트까지 나아감으로써, 해상에서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³⁶⁾

35)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평가에 대해서는 David C. Evans & Mark R. 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97, pp. 94-132 참조.

36) 木石植久慶, 앞의 책, 90-91쪽; 藤原彰 著·임수현 역, 『日本軍事史』, 시사일본어사, 1994, 133-34쪽.

반면,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한 러시아는 열세에 처했다는 인식하에 극동함대를 보완하기 위해 1등장갑순양함 아스고리트호와 3등장갑순양함 노비그(Novik)호를 극동지역에 파견하여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했다. 그리하여 개전 직전 러시아 극동함대는 전함 7척, 1등순양함 5척, 3등순양함 2척, 구축함 25척, 수뢰정 17척, 포함 등 10척으로 구성된 진용을 갖추었다. 함정의 숫자면에서 보면, 러시아 극동함대는 매우 강력하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함정의 수명이 다한 노후함정이 많았으며 운항속도가 고르지 못하여 함대로서 집결하여 운항할 경우 저속(低速)을 표준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1904년 8월 10일 황해해전 당시 뤼순항을 출발하는 러시아 함대는 기함(旗艦)을 비롯하여 5척의 전함과 3척의 순양함, 이를 호위하는 8척의 구축함과 병원선 등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주력함의 대포류의 절반 이상이 이미 러시아 육군의 대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육상포대로 옮겨져 있었다. 긴급출항 명령이 내려지자, 나무로 제작한 위조포가 함정 위에 놓여졌다. 그리고 대포를 조작하는 승무원들도 이미 육상전투를 위해 차출된 상황이어서, 출항시에는 정원부족의 상태였다. 게다가 파손된 함정과 전투준비가 부족한 군함까지 동행시키려는 비트게프트(V.K. Vitgeft) 소장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곧 판명되었다.³⁷⁾

(2) 일·러 양국 함대의 전략·전술과 황해해전의 파급효과

황해해전에서 일본의 연합함대가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함대사령관인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의 전술이 크게 작용하였다. 도고 제독 휘하의 일본 함대는 인천(仁川)에서 러시아 함정과의 전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어서 뤼순항에 대한 기습을 시도하여 러시아 전함에

37) 木石植久慶, 앞의 책, 90-91쪽; 藤原彰 저·임수현 역, 앞의 책, 133-34쪽;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延緒 著, 앞의 책, 64쪽. 개전 당시 러시아의 太平洋艦隊(東洋艦隊)의 전력에 대해서는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延緒 著, 위의 책, 28쪽 참조.

타격을 가하였다. 도고 제독은 러시아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연합함대의 공격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일본군이 뤼순(旅順), 특히 203고지를 점령하여 포격을 가한다면 뤼순함대가 출항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³⁸⁾ 그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그러나 황해해전으로 연합함대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기함 미카사(三笠)호의 함장이 부상을 입었으며, 함정도 상당한 손실을 받았다.³⁹⁾ 그 결과 이들 함정의 수리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해군측은 충분한 전력을 회복하여 발틱함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육군에 의한 뤼순 공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이미 1904년 7월 12일 도고 연합함대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이토 미요지(伊東己代治) 군령부장(軍令部長)이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참모총장을 방문하여 발틱함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뤼순(旅順)을 가능한 한 빨리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일본의 연합함대에게 이러한 황해해전은 ‘후회’가 많은 전투였다. 뤼순으로 도주하여 귀향한 러시아 함대는 이후 항구 밖으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본이 제해권을 확실히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황해해전이 일본군에 지니는 의의는 매우 컸다. 그리고 이날 해전에서 연합함대가 보여준 ‘정자전법’(丁字戰法), ‘이직각회두(二直角回頭)’의 항해술과 사격술, 그리고 그 타이밍의 성공과 실패 등의 경험과 교훈은 몇 달 후 발틱함대와 의 쓰시마해전(對馬島海戰)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황해해전(黃海海戰)

38) 도고(東郷平八郎) 제독은 쓰시마해전에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한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871년부터 7년간 영국에 유학하면서 해군전술과 전시기제법을 배웠다. 그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낭속(浪速)호의 함장으로서 청국 병력을 조선으로 수송하던 영국 선적의 상선 가오성호(高陞号)를 격침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격침을 전시기제법상으로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여 그 명성이 서구에도 알려졌다. 그는 1903년부터 제1함대장과 연합함대 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러시아와의 개전에 대비하였다. 木石植久慶, 앞의 책, 74-76쪽.

39) 황해해전의 성과에 대한 당시 일본 해군의 평가 및 일본측 사상자의 명단 등 구체적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海軍勳功表彰會編, 앞의 책, 292-297쪽 참조.

은 쓰시마해전에 비해 ‘우월하지도 뒤지지도 않은 싸움’으로 평가받게 되었다.⁴⁰⁾

반면, 극동에 파견된 러시아군 내에서는 러시아 함대의 전력이 우세하며 일본군이 만주에 직접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러시아군 쿠로파트킨(A. N. Kuropatkin) 육상(陸相)의 전략은 라오양(遼陽) 주변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러시아군의 병력이 일본군의 수보다 많아질 때까지 계속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미 개전 초기 인천해전과 뤼순항에 대한 기습공격에서 일본 함대의 승리로 한반도 서해안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제거되었으며, 이후 일본 육군의 상륙 및 진남포(鎭南浦)로부터의 진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해군의 승전소식은 양측에 커다란 심리적 파급효과를 끼쳐서 일본 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한 반면, 뤼순함대는 노비그(Novik)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구에 묶여 있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⁴¹⁾

1904년 2월, 뤼순함대가 기습당한 이후 러시아 해군은 지휘관의 교체 등 재정비를 시도하였다. 1904년 3월 7일, 뤼순함대 사령관 스타크 중장(Vice-Admiral Stark)이 마카로프 중장(Vice-Admiral Stepan Osipovich Makarov)으로 교체되었다. 1877년 러·터키간 전쟁의 영웅이자 쇄빙선 건조의 아이디어를 창안한 마카로프 중장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뤼순함대는 다시 전열이 정비되었다. 전함 레트비잔(Retvizan)과 짜스레비치(Tseasrevich)가 인양되어 수리에 맡겼으며, 러시아 군함들도 항구 밖으로 출항할 준비를 갖추었다.

4월 12일, 뤼순함대는 뤼순항구 밖에 기뢰를 부설하는 일본 군함의 규모가 소규모 순양함 정도로 파악하고서 출항하였다. 그 다음날 4월 13일, 연

40) 황해해전 당시 일본군의 전술, 항로변경, 사격술 등 전투상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吉田惠吾, 『創出の航跡: 日露海戰の研究』, 東京: ずさわ書店, 2000, 85-150쪽 참조.

41) 吉屋哲夫, 앞의 책, 92-93쪽; Jukes, *op. cit.*, p. 27.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전략과 전술의 전개과정을 비교한 것으로서 木石植久慶, 앞의 책, 34-78쪽; 강성학, 앞의 책, 339-378쪽 참조.

함함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마카로프 사령관은 뒤순항으로의 귀항 명령을 내렸으나, 오전 9시 39분 그가 승선한 기함 페트로파블로브스크(Petropavlovsk)호가 기뢰에 부딪혀 침몰함으로써 그와 662명의 승무원이 전사하였다. 이러한 기함의 격침과 사령관의 죽음은 뒤순항에 남은 러시아 해군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일본군이 최신예 어뢰 무기를 갖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 후 마카로프 사령관 대신에 그 후임자 비트게프트(V. K. Vitgeft)가 알렉시예프(Alexeyev) 총독으로부터 어떠한 모험도 시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자 뒤순함대의 결전 분위기는 크게 위축되었다.⁴²⁾

뒤순함대의 최고지휘관으로서 비트게프트 소장은 전술도 용기도 보여주지 못한 채 계속 실패하였다. 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의 러시아 해군 지휘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트게프트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러시아 황제로부터 비트게프트 소장에게 뒤순함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회항시키라는 명령서가 8월 7일에 전달되자, 요새 사령관 구리고로비치 소장은 그에게 황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는 쾌속함(快速艦)만을 이끌고 나가며, 저속함(低速艦)은 다렌항(大連港)에 출격시켜 일본 함대를 견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주위 장군들의 이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비트게프트 소장은 황제가 자신에게 내린 명령서를 내세워 뒤순함대의 회항을 감행하였다.⁴³⁾

그리고 황해해전에서 전사한 비트게프트 사령관을 대신하여 바얀(Bayan)호의 선장인 비렌(RN Viren) 해군 대령이 소장으로 승진하여 뒤순에 잔류하는 극동함대 사령관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전 사령관들보다 소극적이어서 뒤순함대의 블라디보스톡으로의 출항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잔류한 함정들에서 약 284개의 대포들을 철거하여 뒤순 요새의 포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사실상 뒤순함대의 무력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⁴⁴⁾

42) Jukes, *op. cit.*, pp. 27-28.

43) 太平洋戰爭研究會 編·平塚枉緒 著, 앞의 책, 63-64쪽.

5.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04년 2월을 최적의 공격시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군은 러시아군의 남하와 유럽으로부터의 증원군 파견 이전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선제공격 전략을 택한 후 개전준비를 하였다. 러시아의 태평양(동양)함대를 상대하게 된 일본 해군으로서는 동북아의 주요 군사요충지인 뤼순(旅順)의 러시아 함대를 격퇴하여 제해권을 장악하고, 만주로 진출하려는 육군의 수송과 상륙작전 및 해상통신망의 보호라는 임무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력을 거의 총동원하여 도고 제독 휘하의 연합함대를 결성한 후, 일본군은 1904년 2월 인천(仁川)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군함을 무력화시키고 육군을 상륙시킨 후 선전포고함으로써, 대러시아 개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다. 이후 일본의 연합함대는 뤼순항구를 봉쇄하기 위해 일본 상선을 몇 차례에 걸쳐 침몰시키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본 해군은 1904년 8월 10일 뤼순항 탈출을 시도하는 러시아 함대의 기함을 격침시키는 등 ‘황해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는 한편, 당시 극동지역으로 출항하는 발틱함대와의 결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황해해전의 승리의 배경에는 당시 일본 언론의 선전 및 군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해군의 일방적 우세보다는 일본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러시아군의 전략적 착오로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발틱함대 등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연 내지 대기상태를 취하였으며, 군지휘부간 이견과 출동지시의 지연 이행 등으로 해군전력이 분산되고 황해에서 일본 해군의 군사작전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44) Jukes, *op. cit.*, p.47.

그 결과 황해해전의 승리 등 일본 해군의 작전활동은 일부 해상전투에서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뤼순항에 고립된 러시아군에게 심리적·군사적 압박을 가하였으며,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를 무력화시키고 육군의 만주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후 러일전쟁을 일본측의 승리로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투고일 : 2004. 3. 4, 심사완료일 : 2004. 4. 1)

주제어 : 러일전쟁, 황해해전, 연합함대, 인천앞 해전, 뤼순항구 봉쇄작전,
도고 제독

K C I

<ABSTRACT>

The Battle of the Yellow Sea and the Japanese
Naval Strategy during the early phase of
Russo-Japanese War

Kim, Hyun-Chul

The battle of the Yellow Sea engaged on 10 August, 1904, has a meaningful implication in light that its results destroyed the Russian Far Fleet and seized the control of the Yellow Sea. Nevertheless, the operations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Russo-Japanese war has not been fully appreciated until now. Thus, this article analyzes, by focusing on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war from the outbreaking moment to the phase of the Yellow Sea battle on 10 Aug 1904. how the Japanese Modern Navy has planned the military strategy and tactics against the Russian Far Eastern Fleet as well as how the Japanese Combined Fleet has made a military operation in the Yellow Sea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Russo-Japanese War.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he Japanese Combined Fleet had to destroy the Russian Navy at Yellow Sea and help the Japanese army l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rprise attack on the Russian warships at Inchon, the Combined Fleet commander, Vice-Admiral Heihachiro Togo, made contributors to this operation further attack the Russian Far Eastern Fleet stationing at Port Arthur.

As the Russian battleships had not been attacking in advance the Japanese Navy until the arrival of the Baltic Fleet from Europe, the

Japanese Combined Fleet undertook a blockade of the Port Arthur. But the blockade of the Port Arthur. But the blockade finally turned out to be a series of frustrated operations.

When the Russian Port Arthur squadron under Admiral Vitgeft attempted to break through to Vladivostok on 10 August 1904, Togo's warship waited in a remote sea from Port Arthur to cut off the path of the Russian warships. Fatally defeated in the Yellow Sea battle, the Russian ships alive returned in part to Port Arthur, with some of them captured and destroyed at the other ports.

Compared with the low-level military morale spread out and the defensive military operation made in Russian Navy let alone the poor-conditioned military weapons equipped especially in Russian Far Eastern Fleet, the Japanese Combined Fleet took a complete advantage of the high speed of their warships, concentrating their fires on the enemy and making quicker and more daring operations under Togo's excellent leadership and his application of tactics.

As a result, despite a large number of mortally wounded soldiers and the suffering of breakdown of their several warships, the Japanese Navy gained the supremacy near the Yellow Sea with the enjoyment of enough time prepared at any against an expected Russian attack, enabling its army to advance into the Manchurian area.

Key Words: the Russo-Japanese War(1904-1905), the battle of the Yellow Sea on 10 August 1904, the blockade of Port Arthur, Japanese Combined Fleet, Admiral Heihachiro Togo, the Russian Far Eastern Fleet